

2021년 10월 3주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Issue Check:

프랑스, 'France 2030' 공개

-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재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로드맵인 'France 2030' 발표. 2030년까지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랑스를 다시 산업화 한다는 것이 주 아젠다로, 향후 5년 간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저탄소 항공기, 수소 기가팩토리 건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반도체 및 생명과학 등 분야에 €300억 (약 \$350억) 투자 계획
-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당시 프랑스의 마스크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위기를 통해 국가적 취약성을 인지했으며, 향후 혁신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 그 중에서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및 수소 산업 육성을 강조. SMR 개발과 수소 기가팩토리 2곳 건설에 합산 80억 유로 투자를 배정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능력은 그린 수소 생산의 주요 자산"이라고 언급. 한편, 11일(현지시간) 프랑스는, France 2030 발표에 앞서 10개 EU 회원국과 함께 EU 집행위에 올해 말까지 핵 발전을 탈탄소화 로드맵에 주요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함

Macron unveils 30-bln euro plan for innovation and industrial revival



자료: Reuters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10/11~10/16)

▲ 기후 및 환경 관련

10/11	<p>U.S. and E.U. line up global pledges to slash emissions of methane, a potent greenhouse g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s Timmermans EU 부집행위원장과 John F. Kerry 미국 기후특사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온라인 회의 진행 후, 국제메탄서약 신규 가입국이 늘었음을 공표하고, 메탄 감축의 중요성 강조 - 온실가스 메탄 감축 협약에 미국-EU를 포함한 24 개국이 참여하기로 약속했고, 협약 가입국들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함. 해당 공약에는 현재 전 세계 메탄 배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9개 국가는 전 세계 경제의 60% 비중 차지.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이 메탄 배출량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 - 전문가들은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효과적으로 감축된다면 2040년에는 지구 기온 상승을 약 0.2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Timmermans와 Kerry는 메탄 감축 협약이 단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유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전략이라고 설명 <p>https://wapo.st/3aEIKMJ</p>
10/12	<p>China Puts Energy Security First While Doubling Down on Renewab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최근 친환경 연설 통해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함과 동시에 에너지 부족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보와 국가 개발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사 내비침.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재생에너지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에도 지원 계속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들을 설정하기에 앞서 최근 중국 전력 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 덧붙여 석탄, 천연가스, 석유 생산이 여전히 국가의 성공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주장 - 한편 시진핑 주석은 쿤밍(昆明)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 화상 연설에서 15억 위안 규모의 쿤밍 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해 개도국의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p>https://bloom.bg/3BVyAlu</p>
10/12	<p>Europe's attempt to switch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management by chaos,' analyst say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BC Energy CEO Johannes Benigni, 현재 유럽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영 방안들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까지는 에너지 자원의 높은 가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Benigni는 이런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Benigni는 이에 대해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채택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기와 시행 방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그는 유럽이 화석연료 경제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미국처럼 천연가스에 투자할 것을 제안.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더 이상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해 유럽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위기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설명 <p>https://cnb.cx/3mSMDIS</p>
10/13	<p>EU '기후변화 당사국, 5년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발표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환경위원회, 12일 (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NDC)를 발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 정부의 입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참가국들은 종전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국이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진전 상황을 추적할지를 정하는 '규칙서(rulebook)'를 제정할 계획. 이번 EU 환경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해당 규칙서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5년마다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 - 환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음 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추진될 예정. 의회를 지지하면 COP26에서 이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주요 배출국인 인도 등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 <p>https://bit.ly/3aCv44C</p>
10/13	<p>Macron unveils 30-bln euro plan for innovation and industrial reviv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로드맵인 'France 2030' 발표. 2030년까지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랑스를 다시 산업화 한다는 것이 주 아젠다로, 향후 5년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저탄소 항공기, 수소 기가팩토리 건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 반도체 및 생명과학 등 분야에 €300억 (약 \$350억) 투자 계획 -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당시 프랑스의 마스크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위기를 통해 국가적 취약성을 인지했으며, 향후 혁신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 그 중에서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및 수소 산업 육성을 강조. SMR 개발과 수소 기가팩토리 2곳 건설에 합산 80억 유로 투자를 배경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능력은 그린 수소 생산의 주요 자산"이라고 언급. 한편, 11일(현지시간) 프랑스는, France 2030 발표에 앞서 10개 EU 회원국과 함께 EU 집행위에 올해 말까지 핵 발전을 탈탄소화 로드맵에 주요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함 <p>https://reut.rs/3j0DXsd</p>

10/14	<p>Investment in clean energy must triple by 2030 to curb climate change – I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A, 전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현 수준의 세 배가 되어야한다고 강조.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친환경 전환과 관련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충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경제 회복에 앞서 글로벌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 또한 최근 에너지 가격 급증과 전력난이 동반되어 산업 활동 저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우려 표명 <p>https://reut.rs/2YQdZ3q</p>
10/14	<p>U.S. planning offshore wind farms from Maine to Californ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메인주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미국 전 지역에 걸쳐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 미국 내무부 장관은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내 풍력 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들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연방 정부가 소유한 해역을 풍력발전 기업에 임대해 줄 계획이라고 보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첫 장기 해상 풍력발전 방안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 또한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도 동반될 것임을 설명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비용으로 약 1천 5백 달러를 투자할 계획 <p>https://reut.rs/3aDg5G0</p>
10/14	<p>RE100 참여 기업들, "재생에너지 공동구매 허용해달라" 정부에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RE100* 참여기업의 대표들이 RE100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섬.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K-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이행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전력구매 협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에도 높은 관심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부는 앞으로 RE100 참여기업을 독려하고, 기업의 RE100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이행모델 다양화, 금융 지원·인센티브 강화, R100 제품 홍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 제기된 RE100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과 RE100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계획 공시 <p>*RE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100%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글로벌 캠페인</p> <p>https://bit.ly/3j31k8J</p>
10/14	<p>Climate change will dominate Biden's agenda when he heads to Europe in two wee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 Antony Blinken 美 국무장관, Janet Yellen 美 재무장관, John F. Kerry 美 기후 특사를 포함한 내각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다음달에 개최되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 파견할 예정. 미국 대표단은 전 세계 국가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지구 온난화 상충목표치를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 - John F. Kerry 美 기후 특사는 약 2주간 미국 고위 임원들을 이끌고 글래스고에 2주간 머무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29일 바티칸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후 위기, 코로나 19 전염병 및 빈곤 문제 퇴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 이후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 - 올해 8월 UN은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바 있음. 이에 따라 이번 G20 회담에서도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기후 변화와 관련해 한층 더 야심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 <p>https://cnb.cx/3BNk0Se</p>
10/14	<p>Emerging markets need \$1 trln a year to get to net zero – BlackRo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록, 신흥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금융(private finance)으로부터 연간 \$1 조 이상의 자원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 해당 수치는 이전에 UN이 제시한 연간 1천억 달러 조달 목표에서 크게 상승한 수준 - 동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신흥국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 해당 이슈는 10월 31일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 - 블랙록은 목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연간 1천억 달러를 지원해야 하고, 이는 향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현재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여러 기관들이 수년 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간 자본 유치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지적 - 정치 및 법·규제, 매크로 이슈뿐 아니라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들도 투자 자금이 유치되는 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잠재적인 손실에 노출될 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 <p>https://reut.rs/3ANWX3b</p>
10/15	<p>High energy prices no excuse to slow green transition – IMF committee cha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운영위원장 Magdalena Andersson,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늦추는 데 변명거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동시에 Andersson은 IMF가 IMF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분석 요인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리스크를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 표명 - 한편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IMF의 평가를 강조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p>https://reut.rs/3p5CJ2H</p>

▲ 기타/통합

"ESG는 기업 생존의 필수 전략"...기업인과 전문가들 한목소리

10/14 - 13일에 개최된 'ESG 경영 설명회'에서 최근 기업 CEO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ESG가 기업의 필수적 생존 전략임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짐.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ESG 경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ESG 경영과 관련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냄. 정 대표에 따르면 ESG 경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ESG 경영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민첩한 대응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도 과감히 공개해 개선해 나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최근 이은정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 연구진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점수가 존재하는 약 9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점수와 주가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ESG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이와 관련하여 ESG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

<https://bit.ly/3FYA7ts>

갈길 먼 ESG...기업, 공급망 ESG 협력 요구 경험 18.1% 불과

10/15 - 국내 기업들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ESG 경영을 도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전환하는 가운데 공급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중. 이 가운데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문은 투자자 IR, 글로벌 영업·마케팅부서에서 'ESG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비를 우선 해야한다'라는 인식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내 대·중소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8.8%가 공급망 ESG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공급망 ESG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점 척도) 1)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3.51점) 2) '거래관계 유지 및 매출·이익 증대' (3.5점) 3) '기업 브랜드 및 평판제고' (3.46점) 4) '사업 리스크 예방 및 관리' (3.46점) 5) '고객회사 또는 투자자의 요구' (3.33점) 등을 손꼽음

- 공급망 ESG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ESG의 중요 가치들을 요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실제 애플이나 테슬라, 바스프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사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들에게도 ESG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만큼 가이드라인이 철저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nk5c2D>

자료: 언론 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10/11~10/16)

▲ 기후 및 환경 관련

<p>10/11</p>	<p>SKT,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발행...ESG 경영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텔레콤, 이달부터 대리점과 지점에서 고객이 직접 요금 납부하면 종이로 발행하던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바꿔 발행. 모바일 영수증 발행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ESG 경영 실천하겠다는 방침 - 모바일 영수증 전환 시 연간 5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30년산 나무 1300그루를 보호하는 친환경 효과 기대. 모바일 영수증은 대리점과 지점에서 요금 직접 납부하면 별도 신청없이 MMS로 발행 - 현재 이메일과 문자, 앱, 웹사이트 등의 전자 영수증과 청구서 이용하는 고객 비율이 전체의 SK텔레콤 고객의 93%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음. SK텔레콤은 지난 10년간 전자 영수증 및 청구서로 종이와 우편 대체하면서 총 66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30년산 나무 17만그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p>https://bit.ly/2YP97eQ</p>
<p>10/11</p>	<p>Exxon to build 500,000 tons of advanced recycling capacity to turn plastics back into raw materi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xonMobil, 텍사스 베이타운에 고급 재활용 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 해당 시설은 회사 최초의 대규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될 것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 초기 Capa 계획으로는 연간 30,000 M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할 것임. 해당 시설은 내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 또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00,000 메트릭톤의 고급 재활용 Capa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네덜란드, 미국 걸프 연안, 캐나다 및 싱가포르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 재활용 회사인 Plastic Energy와 협력하여 프랑스의 Notre Dame de Gravenchon에 재활용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 프랑스 시설은 2023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며, 연간 25,000 메트릭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당 시설에서는 새로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진 <p>https://bit.ly/3aGDiro</p>
<p>10/11</p>	<p>JPMorgan Joins Net Zero Banking Alliance, Committing to Align Financing with Global Climate Go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PMorgan Chase, 월가 대형 은행 BOA, Citi, Morgan Stanley 등과 함께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 Zero Banking Alliance에 참여할 계획. Net Zero Banking Alliance는 2021년 4월에 출범했으며,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은행들이 2050년에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중 하나 - 특히 JPMorgan Chase는 2020년 10월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되고 환경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금융 활동을 하기로 결정 <p>https://bit.ly/3mUcb1Y</p>
<p>10/12</p>	<p>For a Sustainable Pharma Supply Chain: Schreiner MediPharm Among Founding Members of "Alliance to Ze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글로벌 헬스케어 라벨 솔루션 제공업체 Schreiner MediPharm, "Alliance to Zero"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Alliance to Zero는 여러 제약사와 바이오텍 기업들이 파리기후협정에 발맞춰 탄소 중립 상태에 달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시초. 해당 파트너십은 2030년까지 각자 속해있는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 또한 Alliance to Zero는 부품 공급자, 장비업체, 생산 제조 공장 등 전반적인 supply chain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 - Schreiner MediPharm 대표 Thomas Schweizer, 혁신 상품 개발 선두주자로서 동사의 지속가능성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 수명 주기를 모두 고려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 동사가 "Alliance to Zero"에 참여하는 것은 Schreiner MediPharm이 지속가능성에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탄소 중립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주장 <p>https://bit.ly/2YW7rJl</p>
<p>10/13</p>	<p>Google Cloud Enables Users to Measure Emissions from Platform Usage, Expands Carbon-Free Solutions Sui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클라우드, 기후에 초점을 맞춘 여러 기능들을 출시. 사용자들은 해당 기능들을 활용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들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또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지구 전체의 지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재료 채굴을 위한 개발과 토지 관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함 - 추가적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공간정보/분석/시각화 전문 회사 CARTO, 기후 위기 데이터 제공 회사인 Climate Engine, 위성 사진 기술을 지닌 Planet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p>https://bit.ly/3vas33Q</p>
<p>10/13</p>	<p>Volvo Unveils First Vehicle to be Made of Fossil-Free Ste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보, 철강 제조업체 SSAB와의 협력을 통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철강으로 제작된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 밝힘. 올해 8월, SSAB는 볼보에 무화석(Fossil-Free Steel) 철강을 최초로 납품했다고 발표 - 신차에 사용된 무화석 철강은 SSAB, 전력회사 Vattenfall 및 광산 회사 LKAB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HYBRIT 이니셔티브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됨. SSAB는 HYBRIT 기술을 사용하여 2026년까지 무화석 철강을 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세계 최초의 철강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힘 <p>https://bit.ly/2YPTZyg</p>
<p>10/13</p>	<p>LS 전선 '차세대 초전도케이블'로 ESG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 전선,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 초전도 케이블은 송전 중 전력 손실이 거의 없고 대용량 송전이 가능한 전선이며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제품. LS 전선이 개발한 차세대 제품은 초전도층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력 전송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면서도 생산비는 10% 이상 절감하였음. - LS 전선 대표,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에 힘입어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초전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상용화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힘. <p>https://bit.ly/3IDTr7l</p>

10/13	<p>하이트진로, 친환경 폐수처리 설비로 온실가스 4,000 톤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진로, 전주공장과 강원공장에 친환경 폐수처리 설비를 도입해 지난 2년 간 온실가스 약 4,000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공장 내 폐수처리 설비를 환경 친화적인 혐기성 소화조(IC Reactor)로 교체함. 혐기성 소화조는 맥주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부산물과 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보일러 등의 연료로 재사용하는 친환경 폐수처리 시스템 - 2009년 맥주업계 최초로 혐기성 소화조를 전주공장에 도입해 폐수처리효율을 매년 60% 이상 개선해왔으며 2019년 강원공장에도 대규모 혐기성 소화조 설비 도입을 통해 폐수처리효율을 87%로 향상시킴 <p>https://bit.ly/3aFQgpe</p>
10/14	<p>美的集团绿色战略首次发布 布局全流程绿色产业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디 그룹 (000333.CH), 대외적으로 동사의 녹색 경영 실천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함. 녹색 경영 실천 전략에 따르면, 친환경 글로벌 공급체인 형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위 전략을 통해 2030년에는 메이디 그룹은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내고, 국가적 목표인 206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계획 <p>https://bit.ly/3AIsL9Y</p>
10/14	<p>中汽协9月数据公布, “金九”成色不足, 唯有新能源一枝独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동차협회에서 9월 전기차 생산 및 판매 데이터를 발표. 9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매)은 35.5만대로 YoY 184%, MoM 15% 증가. 전기차 시장침투율은 20% 기록한 것으로 집계 - 업체별 판매량은 BYD 7만대, 테슬라 5.6만대, 상해 GM 우링 3.9만대, 상해자동차 2.1만대, 광저우자동차 1.4만대 순인 것으로 분석. 또한 9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15.7GWh로 YoY 139%, MoM 25% 증가. LFP 배터리 탑재량 증가세 지속 중 <p>https://bit.ly/2YVpoiM</p>
10/15	<p>小鹏汽车发布首份 ESG 报告：连续两年获全球车企最高评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XPEV.US)이 ESG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동사는 2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번 ESG 보고서에서 샤오펑은 동사의 ESG 관련 기술적 실천과 경영 의지를 강조 - MSCI ESG 평가 지표에서 샤오펑은 2년 연속 AA 등급을 기록했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둠. 평가 지표 중 탄소저감 분야에서는 10.0, 청정기술개발 분야에서는 9.1 점을 기록 (업계 평균 탄소저감: 7.0, 청정기술개발: 5.5). - 또한 2020년 제 3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샤오펑의 스마트자동차는 일반 연료차에 비해 5,520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것으로 분석 <p>https://bit.ly/3FRy0Yo</p>
10/15	<p>4倍锂电大牛股业绩预超11倍, 股民却高兴不起来, 发生了什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2차전지 산업 내 다수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함. 은첩고분(002812.CH)의 3분기 순이익은 6.5~7.4 억위안(YoY +102~+130%, QoQ +5~+20%) 기록 전망. 블룸버그 컨센서스 7.7 억위안을 하회. 3분기 분리막 출하량은 8.4 억 m2 로 추정되며, 2021년 연간 출하량은 30 억 m2 이상으로 전망 - 강봉리튬(1772.HK)의 3분기 순이익은 9~10 억위안으로 YoY +426~+528% 증가 전망. 블룸버그 컨센서스 4.7 억위안을 상회. 순이익의 큰 폭 상승은 리튬 가격 상승 및 판매량 증가와 금융자산 공정가치 상승에 기인 - 신주방(300037.CH)의 3분기 순이익은 4.2~4.5 억위안(YoY +210~+230%)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4.1 억위안)에 부합 <p>https://bit.ly/3FKPPZr</p>
10/15	<p>For a Sustainable Pharma Supply Chain: Schreiner MediPharm Among Founding Members of "Alliance to Ze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글로벌 헬스케어 라벨 솔루션 제공업체 Schreiner MediPharm, "Alliance to Zero"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Alliance to Zero는 여러 제약사와 바이오텍 기업들이 파리기후협정에 발맞춰 탄소 중립 상태에 달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시초. 해당 파트너십은 2030년까지 각자 속해있는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 또한 Alliance to Zero는 부품 공급자, 장비업체, 생산 제조 공장 등 전반적인 supply chain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 - Schreiner MediPharm 대표 Thomas Schweizer, 혁신 상품 개발 선두주자로서 동사의 지속가능성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 수명 주기를 모두 고려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 동사가 "Alliance to Zero"에 참여하는 것은 Schreiner MediPharm이 지속가능성에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탄소 중립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주장 <p>https://bit.ly/2YW7JRJ</p>

▲ 기타/통합

10/15	<p>PwC Survey: Boards Increasingly Linking ESG to Strategy, But Don't Fully Grasp Ris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wC에서 기업 이사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이사회 의제 안건에 ESG 이슈가 정기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 이는 2019년 34%, 2020년 45%의 응답률 대비 높아진 수준으로, 기업 이사회 ESG 이슈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또한 응답자의 약 2/3가 기업 경영전략이 ESG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고 답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 - 특히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주들이 ESG 이슈에 대해 점차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 이슈는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업 경영진들은 ESG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4%는 ESG가 기업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ESG와 기업 전략, 재무 성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 이사들이 ESG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p>https://bit.ly/2YY0Lui</p>
-------	----------------------------------------------------------------------------------------------------------------------------------------------------------------------------------------------------------------------------------------------------------------------------------------------------------------------------------------------------------------------------------------------------------------------------------------------------------------------------------------------------------------------------------------------------------------------------------------------------------------------------------------------------------------------------------------------------------------------------------------------------------------------------------------------------------------------------------------------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Update (10/11~10/16)

▲ 주식 및 펀드 시장

10/11	<p>Younger investors more likely to take action if frustrated with companies' ESG standards, says Equini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niti 에서 영국과 미국의 리테일 투자자 2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0 대 이하의 젊은 투자자들 중 87%가 기업의 ESG 경영이 실망스러울 경우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 같은 질문에 대해 57 세 - 75 세 사이의 응답자들은 68%가 연례 주총에서 투표로 의견 표명할 것이라고 응답 - Gen Z 세대 (18-24 세) 응답자 83%가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했을 때 좌절감을 느꼈다고 답변. 이는 밀레니얼 세대(25-40 세) (81%), 베이비붐 세대(57-75 세) (61%) 응답률과 비교되는 수준 - 최근 리테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수익률만 고려하여 투자하던 것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ESG 투자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황. 40 대 이하 투자자들 중 2/3 는 기업의 목표, 미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 내리는 것으로 집계. 이들 중 43%는 기업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답변 <p>https://bit.ly/3DGsndR</p>
10/12	<p>국내 펀드에도 ESG 평가인증 시동...그린워싱 차단 관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평가, '베스타스 유류물류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 73 호(베스타스 부동산 73 호)*'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면서 녹색수익증권 최고 등급인 'G'을 부여했다고 밝힘. 한기평은 이 펀드의 투자 방향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환경부의 녹색채권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진단했는데, 수익증권이 신용평가회사의 ESG 인증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번 ESG 인증 펀드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 워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져 시장의 주목을 받음.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를 표방한다고 하여 매수해보니 상상전자 · 하이닉스 등 전통 대형우량주로 채워져 기존 펀드들과 차별성이 없고,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ESG 펀드가 일반 주식형 펀드와 별 차이가 없는 건 벤치마크 때문인데, 기존의 ESG 펀드는 공인된 ESG 지수가 없어 코스피 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ESG 를 포함한 국내 SRI(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최근 1년 새 38 개에서 51 개로 급증했지만 진짜 ESG 펀드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 ESG 인증평가가 투자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펀드 운용사도 코스피 위주의 벤치마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ESG 인증평가가 자리잡으면 '그린워싱'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p>https://bit.ly/3mV0kAB</p>
10/14	<p>Europe Leads the World in ESG Investing, Finds RBC GAM Surv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C 글로벌 자산운용에서 전 세계 투자 기관 800 여 개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글로벌 투자자 중 72%가 투자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에 ESG 통합시킨다고 답변. 국가별로는 유럽 응답자 중 96%가 투자 의사 결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해 1위로 등극. 캐나다는 전년 대비 8% 하락한 81% 응답률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75%를 기록해 3위에 자리매김. 미국은 3년 연속 64% ~ 66%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들이 뽑은 ESG 상위 3개 이슈는 1) 반부정부패 2) 사이버 보안 3) 기후변화 순. 또한 투자자들의 약 1/3 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ESG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 <p>https://bit.ly/3FL5ibM</p>
▲ 채권 시장	
10/12	<p>산은, 국내 최초 원·외화 녹색구조화채권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오염 방지 관리,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원·외화 녹색구조화 채권을 연달아 발행했다고 밝힘. 먼저 원화 채권은 산업은행이 환경부 등과 지난 2월 16일 자료 제출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 조달자금은 오염 방지 및 관리(폐합상수지 사용), 에너지효율(폐열회수) 등 녹색 친환경 사업에 사용할 예정 - 다음으로 외화 채권의 경우, 산업은행이 수립한 관리체계인 'KDB 서스테이너블 본드 프레임워크(Sustainable Bond Framework)'를 기준으로 발행될. 외화 조달자금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발전)와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설비투자 등에 사용할 예정 - 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 <p>https://bit.ly/3aKxLQD</p>
10/13	<p>EU starts sale of debut green bo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 120억 유로의 그린본드 발행. 15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의 11 배 규모인 1천 350억 유로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 또한 현재까지 출시된 그린본드 중 최대 규모로, 이로써 EU는 환경친화적인 채권 최대 발행 국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데 성공 - EU는 포스트코로나 회복 자금의 30%를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2,500억 유로의 그린본드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요하네스 EU 집행위원은 EU를 세계 최대 그린본드 발행처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며 EU의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함 - 한편 BOA는, EU가 매년 350~450억 유로의 그린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20년 유럽 내 모든 국가들이 발행한 것과 맞먹는 규모. NN Investment Partners의 그린본드 수석담당자 Bram Bos는 EU의 대규모 그린본드 발행이 그린본드 시장 유통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 <p>https://reut.rs/3aCpkXK</p>
10/15	<p>부산항만공사, ESG 사회적채권 발행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사용할 1300억원의 사회적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힘. 발행자금 전액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이자 한국형 뉴딜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1 단계)에 사용할 예정 -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회적채권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인증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평가 검증도 시행. 그 결과 사회적채권 가운데 최고평가등급인 'SB1' 등급을 받아 채권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성공적으로 높임 <p>https://bit.ly/3l0iTXN</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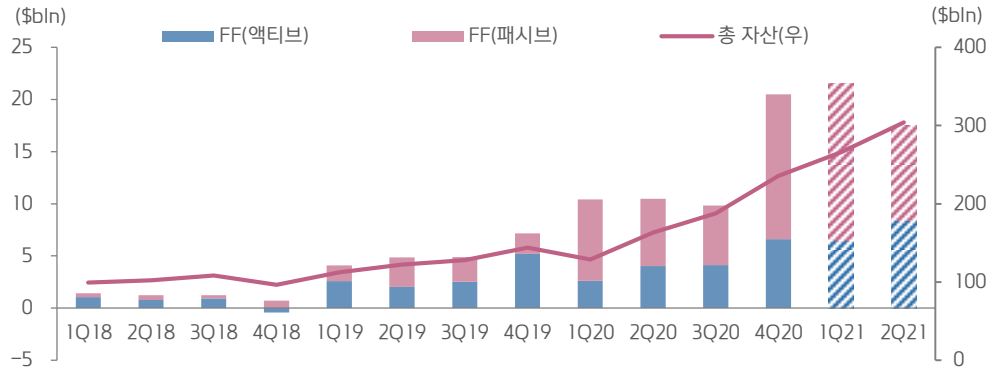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추후 주요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유럽 기후법 승인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에는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중-EU 탄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탄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21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4분기 중	한국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공동우량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구체화·차별화는 '22~'23년 진행,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 반영할 예정
	한국	K-탄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탄소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4분기 중으로 연기
	한국	스튜어던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던십 코드* 개정 검토 - 스튜어던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던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21.6월 162개 기관이 채택·시행 중
	아세안	ASEAN 탄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탄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탄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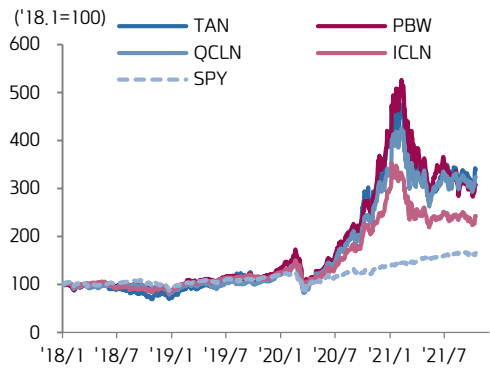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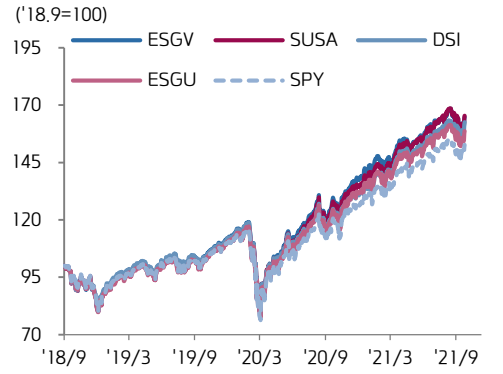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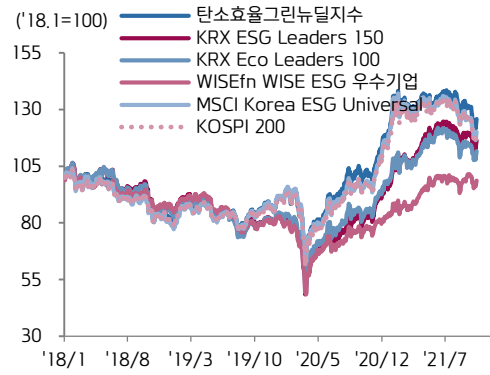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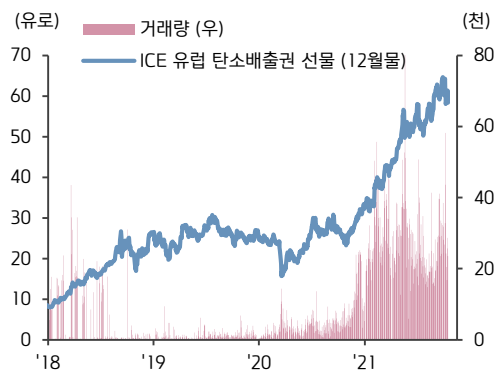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2,834.5	+2.1	+0.6	+3.3	+19.1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7,073.5	+2.5	-0.7	+2.3	+9.9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6,982.7	+2.5	+1.2	-2.6	+1.9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2	6,216.3	+7.5	+1.8	+3.8	-18.8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5,506.9	+2.1	+0.4	+3.4	+18.4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4,059.2	+2.3	+1.0	+4.4	+21.7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925.0	+2.5	+0.4	+4.1	+21.4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887.3	+2.3	+1.3	+4.4	+22.1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629.2	+2.4	+1.6	+4.9	+22.2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263.6	+11.0	+2.3	+8.1	-15.2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774.3	+2.4	-0.8	-0.1	+6.9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626.0	+7.0	+2.0	+8.5	-4.4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966.8	+1.4	-0.9	+3.0	+21.0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	1,785.2	+6.6	-1.8	-1.1	-23.0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585.2	+0.4	-1.1	-1.0	-2.7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29.5	+2.0	+0.9	+4.0	N/A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352.1	+1.4	+0.1	+4.1	+21.7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221.8	+1.9	+0.4	+3.0	+18.6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177.9	+1.7	+1.7	+5.2	+18.2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158.3	+2.0	-1.6	+4.9	+22.5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57.8	+2.2	+0.6	+2.6	+14.4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154.7	+1.8	+2.1	+3.3	+18.4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1,079.7	+1.6	+1.5	+4.4	+16.8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074.5	+4.0	+2.6	+6.1	+20.3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45.6	-0.2	-0.5	-0.6	-1.1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981.5	+2.5	+1.2	+12.5	+62.6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65.8	+6.9	+0.6	+3.4	-12.4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85.0	+2.9	-1.0	+5.3	+20.9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84.8	+2.6	+1.8	-1.5	+5.7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34.2	+0.9	-1.3	-1.2	-2.9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777.7	+2.1	+1.4	+3.8	+20.8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640.8	+1.7	+0.8	+3.4	+19.4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593.5	+2.7	-0.3	+1.5	N/A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592.2	+3.8	+0.2	+6.4	+19.9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60.5	+2.0	-1.4	-1.3	+2.6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93.2	+2.2	+0.4	+4.0	+19.8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79.9	+0.2	-1.0	-1.0	-2.3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	464.8	+2.4	+0.1	+3.5	+19.7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38.7	+3.5	+2.6	+5.1	+16.7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15.6	+6.6	+2.5	+3.9	+2.3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	386.5	+3.5	-0.8	+4.8	+14.1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81.4	+5.4	-0.7	+2.2	-9.1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79.8	+6.5	+3.1	+4.2	-7.3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367.0	+7.8	-2.2	+0.6	-17.3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337.5	+2.1	+1.4	+3.7	+20.7

자료: Bloomberg, 주) 2021-10-15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12.6	+2.4	-4.4	+0.1	+16.2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8.5	+6.8	+1.9	+4.0	-4.2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90.5	+2.6	+1.7	+3.6	+17.8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79.5	+5.9	+3.9	+8.7	+22.8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72.7	+2.4	+3.3	+6.9	+26.8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70.4	+1.8	+0.7	+2.8	+19.0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6.0	+0.4	-1.2	-1.3	-3.6
XVV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262.7	+2.0	+0.4	+3.3	+19.7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55.7	+2.6	-2.6	+2.5	+9.3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49.3	+2.5	-1.2	+1.5	+8.5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243.6	+0.8	-1.4	-1.2	-3.2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38.2	+0.3	-0.9	-1.2	-2.6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34.3	-0.0	-1.1	-1.3	-2.1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20.4	+8.1	+5.9	+6.3	+17.1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205.6	+2.4	-1.3	+2.2	+9.7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5.8	+5.2	+4.9	+1.4	+5.6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85.5	+1.9	+0.7	+3.3	+19.3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84.4	+2.0	+0.8	+3.9	+15.7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81.8	+2.2	+0.2	+3.2	+16.8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76.8	+2.0	+0.7	-3.6	-0.4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73.1	+2.8	+0.2	+4.4	+17.4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73.0	-0.0	-0.1	-0.1	-0.2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68.9	+9.9	+2.9	+5.7	-12.9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54.0	+2.5	-0.9	+1.9	+9.7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52.5	+2.4	+1.1	+4.4	+20.6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41.7	+5.3	+0.4	+1.0	-10.7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26.2	+2.5	+1.9	-3.0	+4.8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22.4	+0.4	-1.1	-0.6	-1.1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8.5	+1.9	-0.3	+2.1	+11.5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7.1	+2.2	+0.6	+2.6	+14.0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104.0	+0.7	+0.0	+2.3	N/A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100.6	+0.0	-1.1	-0.9	-1.8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9.4	-0.0	-1.9	-2.4	-3.8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6.3	+1.3	-0.4	+2.4	+18.1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96.2	+2.5	+0.2	+2.4	+17.5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73.5	+1.8	+3.8	+6.8	+24.8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67.0	+3.0	-3.3	+2.0	N/A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	65.8	+2.8	+1.2	+4.4	+19.1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60.2	+2.3	+2.2	+4.4	+18.1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56.0	+2.0	-2.0	+2.4	+17.0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47.0	+12.9	+4.1	+0.9	N/A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43.1	+0.9	-0.6	+0.1	+2.6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6.2	+1.1	-1.2	+1.0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5.7	+2.2	+0.7	+3.9	+17.8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4.6	+8.9	+4.0	+4.0	N/A

자료: Bloomberg, 주) 2021-10-15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2.5	+2.2	-1.9	-6.3	+1.0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2.2	+1.8	+0.2	+2.6	+16.8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29.8	+0.8	-2.5	-2.9	-5.3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29.8	+1.0	-1.3	-1.1	-2.9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9.4	+2.3	+0.5	+4.8	+20.5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7.2	+2.1	+0.8	+3.6	+20.2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6.2	+0.4	-1.0	-1.0	N/A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25.0	+2.8	+2.2	-2.7	+3.3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4.3	+0.5	-0.9	-0.8	-0.1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22.4	+2.8	-0.9	+6.3	+14.2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22.3	+2.3	+0.6	-1.7	+6.1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1.0	+1.2	+1.2	+3.0	+21.5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20.6	+1.8	+1.1	+1.9	+14.5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20.5	+2.5	-1.2	+2.5	+8.4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3	+1.8	+0.1	+1.9	+11.1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20.3	+2.6	+1.1	+1.0	+6.0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7.8	+0.5	+1.9	+4.7	+18.9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5.1	+3.3	+1.4	+5.7	+14.0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9	+2.0	+2.7	+4.7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7	+0.3	+2.9	+5.3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6	+2.8	+2.1	-8.2	-3.2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5	+2.2	+1.4	+3.8	N/A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10.0	+1.7	+0.5	+3.8	+23.7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10.0	+2.5	+1.4	+3.2	+13.5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8.8	+2.6	-3.4	+2.6	N/A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 100 ETF	청정에너지,에너지	0.87	8.7	+6.0	+1.6	+6.2	+4.3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8.6	+1.8	+0.1	+2.9	+9.1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8.5	+1.4	-1.6	+1.5	N/A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1.5	-0.2	+1.2	+7.8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7	+2.0	-3.0	+0.3	+8.8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6.8	+2.3	+1.2	+3.5	+19.4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6.6	+0.9	-1.4	-1.4	-3.6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6.0	+3.2	-0.2	+4.7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1.2	-0.6	+0.5	+4.4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7	+2.3	+2.4	+4.0	+11.5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6	+1.5	+2.9	+4.2	+24.1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5	+1.0	-1.7	+0.5	+9.4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4	+4.6	+0.7	+8.3	+11.8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5.3	+0.0	N/A	N/A	N/A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4.8	+2.5	-0.1	-4.8	N/A
LGBT	LGBTQ+ ESG 100 ETF	ESG	0.75	4.0	+1.6	-0.1	+1.8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8	+2.4	+1.6	+6.0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6	+2.4	+1.0	+3.1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2.4	+2.1	+0.6	+3.6	+21.8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2.5	-0.7	+0.1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3.9	+5.0	+5.6	+26.9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1	+3.5	-0.5	-3.5	N/A

자료: Bloomberg, 주) 2021-10-15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9/13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3주) https://bit.ly/3kGs6AQ
2021/09/0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2주) https://bit.ly/3k57q5x
2021/08/30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1주) https://bit.ly/3jLWSb9
2021/08-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4주) https://bit.ly/2WvRuc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https://bit.ly/3glXqj4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https://bit.ly/3g2EKHK
2021/08/11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글로벌 연기금과 펀드의 ESG 투자 https://bit.ly/2XmL6eu
2021/08/0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2주) https://bit.ly/3g2EKHK
2021/08/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2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xugtOU
2021/08/0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1주) https://bit.ly/3jPD1H5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https://bit.ly/3A0glAn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https://bit.ly/3zwIBVv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https://bit.ly/3imCdsq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https://bit.ly/3suDxnC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https://bit.ly/3HfREr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https://bit.ly/3gYwU2C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0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Ai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1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v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i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i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j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Q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i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5OCiI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0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